

# 아버지는 금어 · 어머니는 개금장

백태남 개금장(만다라 불교미술실 원장) 가족



백태남 원장 가족은 남편 금어 故김익홍 선생(전통도금기능전승장)의 제자들이다. 일섭 스님의 마지막 제자인 김익홍 선생은 불화·단청·조각을 두루 섭렵한 최고의 기능장이다. 왼쪽부터 백원장은 개금장으로, 맏딸 도래 씨는 불화작가로, 아들 종정 씨는 불교미술 꿈나무로, 둘째 나래 씨는 불교공예 작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대표 김도래)를 찾았다. 김도래(42)씨와 동생 나래(35) 자매는 불화 작업 중이었고 그들 뒤로는 7년전 작고한 초상화 속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포천에서 만다라 불교미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백태남(65·개금장) 원장과 그를 도우며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막내아들 김종정(24) 씨도 한자리에 모였다.

백태남 원장 가족들은 남편 금어 故김익홍 선생(전통도금기능전승장)의 제자들이다. 일섭 스님의 마지막 제자인 김익홍 선생은 불화·단청·조각을 두루 섭렵한 최고의 기능장이다. 그는 7년전 작고하기 전까지 아내, 자녀들과 함께 불교미술 작업을 하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래서 백태남 원장은 개금장으로, 맏딸 도래 씨는 불화작가로, 둘째 나래 씨는 불교공예 작가로, 또 아들 종정 씨는 불교미술의 미래를 밝혀줄 꿈나무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 중 한 명이 가업을 물려받기도 쉽지 않은 요즘 세상에 이렇게 3명의 자녀와 불교미술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대를 잇는 불교미술의 작업**

백태남 원장은 가업을 물려받는 일은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세상 살기가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절에서 작업하다 보면 스님들도 또 주변 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서 다른 일하는 것보다 불교미술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부모들이 하던 일이니 자식들이 대를 이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자식들에게 재능을 물려줘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어떤 유산보다 훌륭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가문’을 만드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백태남 원장은 40여년 개금 분야에 매진해 속리산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상’을 비롯해 수많은 대작불사를 이루어냈다. 특히, 일본 금택 미술대학 미술공예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 전통도금 기술 전수자로 김익홍·백태남 부부를 선정할 정도로 이들은 도금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백 원장이 이렇게 개금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던

것은 자유분방한 예술가 남편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말한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화 작업은 지방으로 많이 가니 한 달 이상 집에 안 들어 올 때도 있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결혼을 지켰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날 혼자서 애꿎지 말고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문적 기술을 익히게 되었죠.”

1남 3녀의 자녀를 둔 백 원장은 자녀 모두에게 이 일을 물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작업을 돕게 했어요. 기본적인 학비를 대주는 것 이외에 용돈은 꼭 집의 일을 도와야 주었죠. 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그런 훈육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모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절제되고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불교미술을 어린나이에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의 재능과 끼가 넘치기에 반항도 했고 울

던 것은 자유분방한 예술가 남편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말한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화 작업은 지방으로 많이 가니 한 달 이상 집에 안 들어 올 때도 있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결혼을 지켰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날 혼자서 애꿎지 말고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문적 기술을 익히게 되었죠.”

1남 3녀의 자녀를 둔 백 원장은 자녀 모두에게 이 일을 물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작업을 돕게 했어요. 기본적인 학비를 대주는 것 이외에 용돈은 꼭 집의 일을 도와야 주었죠. 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그런 훈육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모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절제되고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불교미술을 어린나이에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의 재능과 끼가 넘치기에 반항도 했고 울

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도래 씨는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지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중학교 때부터 일을 돕거나 책을 읽어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기 싫어서 도망도 가고 반항도 많이 했죠. 중학교 때 한번은 특별활동으로 유화를 그리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붓을 부러뜨려버리면서 저를 혼내셨죠. 제 살인데 한번도 제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의 맏이로서 늘 가업을 물려받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았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탄 길을 간 사람도 있다. 도래 씨의 쌍둥이 자매였던 소래 씨는 대학을 다니던 중 결국 가출을 했고 인테리어를 전공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모두가 불교미술 작업을 하는 운명론적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나래 씨 또한 이런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한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결국 엄마 욕심이 아니냐고 자식들 잘 키웠다는 소리 들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고 반항했죠. 어느날은 엄마는 작업복 입고 사포질 하며 사는 게 행복하냐고 엄마 인생을 살라는 충고 아닌 충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백태남 씨의 답은 확고했다. “그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답했죠. ‘직장에 다니는 것은 타인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가 성립되지만 일은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아도 마음은 내 것이다 이것이 자유’라고 말이지요. 요즘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 성공시키는 게 목표인 듯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식 교육시키는 거죠.”

어머니의 이런 확고한 신념은 자녀들을 모두 불교미술의 길로 가게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Made in Korea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mm<sup>2</sup>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비규격 전선은 전화문의바랍니다.
- 22cm, 23cm, 25cm (50구) @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 75,000 (2줄이상)
- 1 m (50구) @ 90,000 (2줄이상)
- 2 m (25구) @ 80,000 (2줄이상)

# 바림등 (6cm) @ 2,500원 (60개이상)

# 바림등 (8cm) @ 3,000원 (30개이상)

주광색    촛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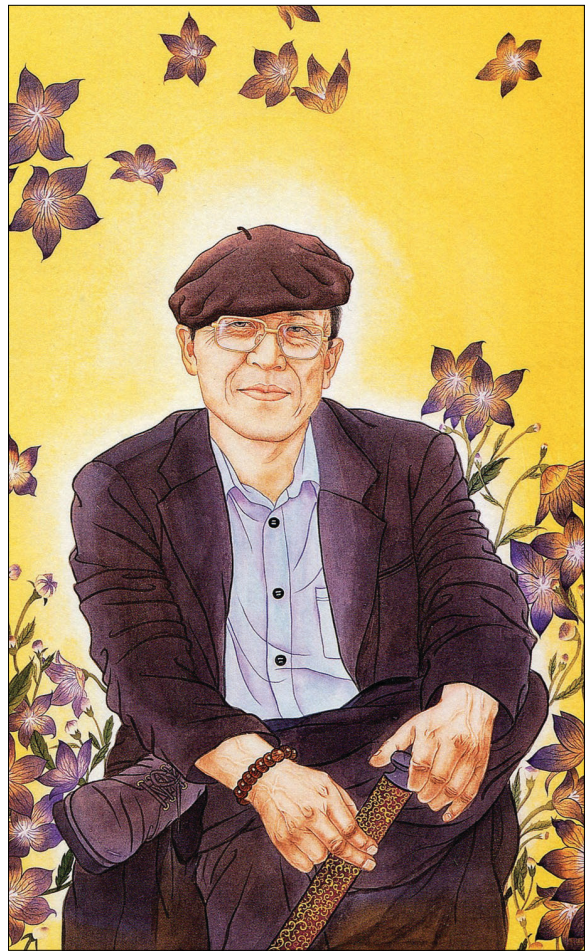
일반연일 6,000    일반연일대 6,000    바림연일 7,500    한지바림연일 9,000    천바림연일 30,00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http://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루키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010-2094-2991-09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 그 솜씨 원력 배우며 대이어



2011년, 아버지 김익홍 선생 추모기념 전시를 열었다. 김도래작 '아빠와 나'



김익홍·백태남 부부는 일본 한 대학의 보고서에 소개될 만큼 도금 기술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남편 김익홍 선생과 아내 백태남 원장의 작업 모습.



백태남 원장은 좋은 가문을 만들고자 자식들에게 불교미술을 전수하는 일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문이었고. 이 모두가 제가 자라온 환경 덕분이었고 이는 불교미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같은 스승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죠. 하지만 치열하게 불교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잡고 방향하는 제가 곱게 보일지 않았죠. 그래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모두가 저의 운명임을 알고 불교미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래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산다고 말한다. “불교미술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무엇이 궁금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가 여쭙으면 어떤 질문든 술술 답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해박한 분이셨죠. 예전에는 제 실력보다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주목 받는 게 싫기도 했는데, 돌아가신지 7년이 된 지금도 아버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삼 느끼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아들 종정 군은 어린 나이에 불교미술가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래픽디자인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누나 도래 씨의 설득으로 단 하루만에 고민을 끝냈다고. “집안의 장남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큰 혼란은 없었어요. 가장 숙편할 때가 어머니랑 사포질할 때예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더 많은 걸 못 배운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생 인연으로 불교미술을 하고 있다고 백 원장은 말한다. “남편은 전생에도 이 일을 했고 다음 생에도 이 일을 할 거라고 늘 말했어요. 남편은 장공인들과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죠. 그들이 일하는 초막에 가서

이야기 듣고 기록되지 않은 비법을 알아왔어요. 정교교육을 받지 않은 장공인들이 사투리로 말하는 그들만의 용어들을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 작업에 적용했죠. 이 모두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어떤 스님이 저희 가족들이 전생에 모두 도반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가족의 인연은 매우 지중하다 할 수 있어요.”

###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다

가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김익홍 선생은 7년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경희대 동국대 동산불교대 등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전통미술의 중요성과 기법을 전수했던 불교미술계의 장인이자 예술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불교미술의 길로 이끌어준 큰 스승이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작고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가족들은 전시를 열었다. ‘복존선생 식솔전’은 제자인 동시에 가족인 식솔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자리로 조각과 개금 단청과 회화, 전통과 비전통 모사와 장작 등 불교미술의 모든 것을 보여준 전시라 할 수 있다. △백 원장은 탈금법을 활용한 ‘아미타삼존’과 금채법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도래 씨는 아버지 김익홍 선생을 그린 ‘아빠와 나’, 연꽃으로 표현한 ‘연화장 세계’ △나래 씨는 ‘무명’, ‘해수관음’을 △종정 군은 ‘사자상’ 등을 선보이며 각각 아버지에게서 배운 재능을 펼쳐보였다.

올해 3월에도 이들 가족은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 일석

문도회(회장 김성규)가 주최한 두 번째 회원전 ‘2015불모들의 향연’에 나란히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회원전에서 △어머니 백태남 원장은 ‘목조아미타불 개금’ △도래 씨는 수의에 아미타불 옷의 문양을 금박으로 표현한 ‘극락으로 가는 날’을 △나래 씨는 ‘화엄경 변상도’를 출품해 주목받았다. 특히, ‘극락으로 가는 날’은 도래 씨가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한 수의 작품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았다.

백 원장은 늘 남편이 그림이라고 말한다. 열혈이고 한 달이고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제 나간 사람처럼 ‘도래 엄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며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보고 듣고 익힌 것을 아내에게 말하던 남편. 언제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 때문에 속 끓였던 젊은날이 있었기에 남편이 집에 나선 날을 기억하지 않았고 돌아올 날을 애태우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만 매진했다는 아내 백태남 씨. 그의 네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재능과 어머니의 끈기를 답아가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생에는 남편을 도반으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 생에 열심히 더 공부해 남편과 함께 불교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백태남 씨는 다음 생에도 꼭 남편과 만나고 싶다는 발원을 했다.

앞으로 김익홍 선생의 추모 10주기를 맞는 3년 후, 가족들 모두는 다시 전시회를 열기로 약속했다. 얼마만큼 자신들이 성장했는지 또 얼마만큼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전법일기

### 염불과 다라니 수행의 매력

비록 신심이 있고, 공부가 많이 되었다 해도 ‘신행’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맹신이 되거나, 알음알이에 사로잡혀 잘난 척만 하고 있을 것은 볼 보듯 뻔한 것이기에, 나와 인연이 닿는 분들에게는 신행 실천 법으로 염불과 다라니 독송을 권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업장을 소멸 해주는 염불과 다라니가 일상의 근심 걱정을 털어주고 환희심을 증진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 믿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상에서 화두수행에 전념하기 힘든 불자들에게 염불과 다라니 독송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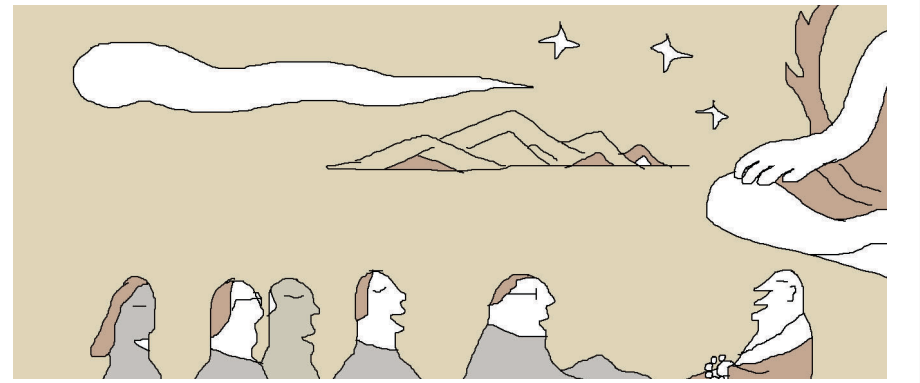
성불암에서 매주 특정일을 잡아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하고 1시간씩 참선을 하자고 권했더니 모두가 흔쾌히 함께 정진

게 되었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은 ‘선우회(禪友會)’로 결정했다. 비록 다라니 독송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로 모든 수행을 보듬고 있었다. 그렇기에 ‘선(禪)’을 함께 닦아나가는 도반(禔)의 의미인 ‘우(友)’로 하였다. 그리고 다라니 독송을 마치면 늘 참선으로 수행을 마무리 하였기에 ‘선우(禪友)’라는 이름이 맞기도 했다.

문제는 성불암이 관악문화원도서관과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점이었다. 아파트와의 거리가 채 50미터도 안되었는데 도서관 역시 인근에 있어 다라니 독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법당문을 열고 독송



그림·박구원

하겠노라 하였다. 2010년 여름날 수요일 저녁 7시, 목탁 소리가 ‘뚝뚝뚝뚝’ 울리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난 후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이 시작되었다. 비록 5명이라는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 내겐 큰 의미가 다가왔다.

부처님께서도 첫 설법을 5바구로 시작하셨기에 아마도 그 의미가 남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된 ‘신묘장구대다라니’ 첫 독송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 까닭은 ‘다라니’ 독송을 하며 느낀 점을 주위에 힘들어서는 분들에게 권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이 참석했을 때는 20명 가량 되었고, 고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도 10여 명이 됐다.

어느 날 다라니 독송을 마치고 의견을 살피며 비취보았다. “매주 수요일 이렇게 다라니 독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라니 독송을 천일 동안 해보는 것은 어떨냐”고. 매주 수요일은 성불암 법당에서 독송하고, 그 외의 날은 택에서 매일 21독을 하시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 주었더니 모두들 흔쾌히 다라니 독송 천일 서원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천일기도’의 원이 세워졌고, 모임이 만들어지

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또 도서관의 중고등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 등으로 독송 삼매가 깨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신고 등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땀겨우 하던 적이 많았다. 법당이 추운 관계로 겨울철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목탁을 치면서 손이 얼기도 했다.

이윽고 3번의 여름과 3번의 겨울을 보내며 천일기도를 달성했다. 선우회 법우들은 다라니 CD를 만들었다. 음반 기획사에 근무하고 있던 혜성(이치훈) 법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녹음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녹음 진행은 순조롭게 되었다. 이름은 ‘자비의 마음으로 대종과 함께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붙여졌다. 고맙게도 불교방송에서도 협찬을 하여 현재도 배포되고 있다.

다라니 독송을 계기로 문친 선우회 법우들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늘 함께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이 귀한 인연 함께 하소서!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